

김태룡(삼화한양식품 대표이사)

“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하면 성공하죠
”



녹차를 비롯해 한방차, 유자차, 생강차 등 여러 가지 전통차와 생수(生水)를 생산하는 삼화한양식품 김태룡 대표이사. 사업을 시작하지 40여년이 흘렀고, 2005년에는 수출 300만불 탑을, 2007년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는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우뚝 서기까지의 이야기는 한 편의 대하소설이다.

“매출에 대한 욕심을 내다보면 탈이 생기게 마련이라 생각하기에 크게 욕심을 부려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내 형편에 맞게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이요. 큰 욕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인지 시련이나 좌절은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직한 경영’입니다.”

삼화한양식품은 1970년 설립돼 오직 우리 전통차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것에 전심전력하여 40여년 외길을 걸어왔다. 이제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20여국에 수출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난산에 제1공장, 최첨단 시설을 갖춘 제2공장이 있다. 김태룡 대표는 “분에 넘치게 사업을 확장하지 않는 것이 순탄한 길을 걸어온 비결”이라고 말했다.

“사업이라는 것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남을 속인다는 것은 큰 죄악이요.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한 번 남을 속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정직한 것이 생명이라고 믿어요.”

김 대표의 집무실 벽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상패와 감사패가 눈에 들어온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도 2006년 국제청장 표창, 2003년 국제청장 표창, 2001년 모범 납세자 표창 등을 받은 것만 보아도 그의 ‘정직한 경영’ 철학을 짐작할 수 있다.

삼화한양식품의 자매회사인 산수(山水)음료는 88올림픽 때 생수 공급업체로 지정됐는가 하면, 2000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때 유일하게 물 공급업체로 지정됐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최고의 물을 만들고자 하는 김 대표의 경영이념과 함께 자신이 생산한 물을 마시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의 발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

수해(水害)가 난 곳에 제일 먼저 달려가 생수를 전달하는 것 또한 김 대표의 일이다. 수해나 태풍 등 재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밤새 생수라인을 가동해 수해 지역으로 달려가는 것 또한 김 대표가 하는 일 중 한가지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CEO과정 총동창회의 봉사모임 보현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 대표는 2006년부터 지하수 관정개발 봉사를 주도하고 있다. 남양주 불안사와 양양 낙산사를 비롯해 곡성 태안사, 아산 옥련암, 김천 청암사, 서울 봉덕사, 곡성 관음사 등 사찰 12곳에 지하수 관정(管井)을 기증해 세인의 눈길을 모았던 그 일도 김 대표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김 대표가 사람들의 식수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알고 발의한 것이다. “사찰에서 식수개발을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우물개발업자의 무리

부터 본격적으로 불교에 입문하여 공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출근해서 제일 먼저 아침예불부터 올린다. <천수경>을 시작으로 ‘화엄경약찬’ ‘사대주’ ‘광명진언’ <반야심경> 등을 독송하는 것으로 아침예불을 올린다. 물론 아침예불 때 108배 또한 빠뜨리지 않는다. 김 대표는 출장을 가더라도 예불을 거르지 않는다.

108배를 할 때는 “진정한 불자로서 생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발원을 한다. 부처님 정신으로 사업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있는 김 대표는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다스려나가는 것이다.

6년 전부터 지인의 권유로 <법화경>과 <금강경> 등을 사경했다. <법화경>을 사경하면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고 식이 맑아진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법화경> 사경이 수행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처음에는 한문으로 사경하다 보니 8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시작한 <법화경> 사경만도 12권을 넘게 해 사경한 노트 분량도 40권이 훨씬 넘는다. 그는 <법화경>이 너무 좋아 여러 사람이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사무실에 수십 권의 법화경을 사다놓고서는 인연 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매출액이 500만 불이 넘는 큰 회사를 꾸려가기도 바쁠 텐데 사경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다.

“사경하는 것이 쉬 쉬고 밥 먹는 것처럼 거의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 할 정도입니다. 경전을 앞에 두고 한자 한자 써내려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안정되면서 경전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수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앞으로 경전공부에 매진하는 일과 수행의 한 방편으로 사회봉사를 하고 싶단다. 환경이 열악한 사찰에 지하수개발을 해주는 것 또한 김 대표가 앞으로 해야 할 사회봉사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 대표는 회사 경영과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법문 아닌 법문을 하고 있다. 온화한 열정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그의 의지가 느껴진다.

글·사진·문운경(수필가·본지 논설위원)

매일 예불로 일과 시작, ‘법화경’ 사경도 꾸준

사찰 지하수 개발 봉사... 전통차 생산 독보적

한 시공과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등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하수 개발공사비는 적게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소용되는 큰 불사다. 그러다 보니 재정이 어려운 사찰에서는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산수음료 지하수개발팀의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에 사찰에 무료로 지하수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식수와 생활용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들이 많이 신청해주면 좋겠다고 한다.

“부처님께 깨끗한 물을 올리는 것이 불자의 도리가 아닐까요? 그리고 수행하시는 스님들도 좋은 물을 마시고 건강해야 수행에 더욱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을 다니긴 했지만, 10년 전

전통과 실력의 우수업체

범양금고 불전함

일반 내화금고
(가정용, 사무용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목재 불전함과 크기 및 외관이 흡사하여 금고를 사용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 하였으며 통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투입구의 취약함을 차단하여 더욱 안전하며, 바퀴부착으로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합니다.
수시로 훼손되는 목재형 불전함과는 안정성 및 비용면에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불전함 야외용 주문 제작 가능]

범양금고의 모든것이 있습니다. <http://bumyang.net>

기존 불전함 투입구의 취약함을 보완하여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

불전함 내부구조

불전함 · 외 부: 높이 700×넓이 700×깊이 350(mm)
· 투입구: 가로 380×세로 90(mm) · 무 게: 60Kg

특허신청증, 주문제작, 전국 택배 가능 (최대 3일 이내)

미아산 탐사, 부산 금정사의 계룡사,보광사,법성사,해림정사 등에서 이미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범양금고 전화 02)2277-1540 / 031)764-6234, 6233 / 팩스 031)764-6462
011-414-2304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172-5